

위생계육 생산 및 유통정책의 저해요인(下)

소비자가 믿고 즐겨찾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위생 도계품을 생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지름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 선 미
천호인터그레이션(주)
수의사

4. 현행도계 검사업무

1) 도계검사에 앞선 시설 현대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도계품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의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검사업무는 무용 지사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계장 시설 하에서는 도계검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건비나 줄이기 위한 타업무를 겸하는 길밖에 없으며 도계품질을 위해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시행규칙의 검사업무 조항 미흡

시행규칙에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 가운데 종점업무인 질병 또는 이상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너무 개괄적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실행상 한계가 모호하며 검사기록부의 항목도 검사기록부의 비치로만 되어있어 무슨 검사기록부인지 명확하지가 못하다.

3) 위탁도계의 탈피

현 대부분의 도계장이 일부 또는 전체 작업량을 위탁도계에 의존하고 있어 도계위축한 상인의 요구에 따라 생산해 주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도 없는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에서 검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4) 야간업무

냉장유통라인 및 냉각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생계 수송수단이 뒤떨어진 관계로 대부분의 도계장은 야간에 올빼미작업을 하므로 행정감독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체검사업무도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예 실행하지도 않게 되어 있다.

5) 도계품포장 및 제조일자 표시

도계품의 포장출고에 따라 도체의 검인이 포장에 아예 인쇄되었거나 포장에 라벨로 붙어있는데 유통에 있어 도계장의 라벨이 붙어있는 것은 거의 볼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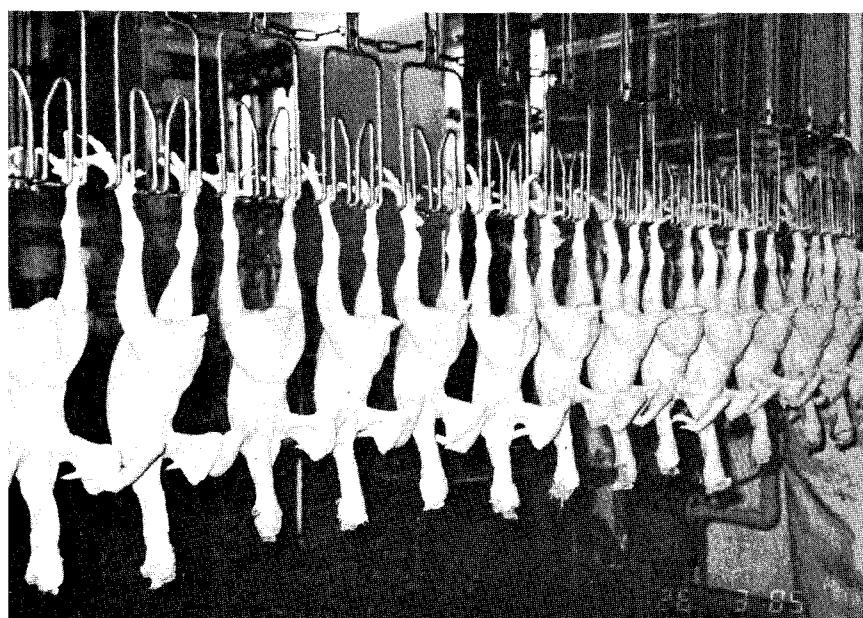
백화점이나 유통회사에서 위탁 도계품을 받아 재포장하거나 직접 위탁 도체를 하여 자기 유통회사의 라벨을 붙치게 되니 검사업무와 검인이 필요없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현재는 검인도 없이 제조일자를 마음대로 상품 전시 날자에 찍어 판매하고 있다. 한편, 부분육의 포장출고도 마찬가지이다. 부분육은 도계품을 부분 절단한 것에 불과한데 보사부의 식품 가공업에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게만 만든 실효성이 없는 행정업무의 실상을 보는것 같다.

소 돼지의 경우 지육, 등심, 내장 등 부분적으

로 도축하여 유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것이 있는 것일까? 부분육의 품질은 근본적인 도계장에서의 위생적인 생산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하는 곳에서는 제품 품질에 관해서는 거의 무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 절단포장업무에서의 검사업무는 거의 필요가 없게되고 이곳의 자체 검사원은 적당하게 잘라 포장되고 검인 라벨이 붙는 제품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무용 직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도계등급의 부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도계장에 방문하여 생체나 도체를 보고 몇등급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한 등급만 있다고 하면 시설이 아무리 현대적이라 하여도 만사 알았다는듯이 더이상 묻지 않는다. 생물체인데 어떻게 품질의 등급이 없느냐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도계장에 도착한 운송상자(닭어리) 중의 생계들을 보아 외국의 등급기준에 적용해 보면 B급과 C급에 속하는 것이 많은 것은 육계 생산시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계품의 위생적인 생산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축산업의 생체나
도체가 한등급으로만
유통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

검사 업무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 도계시설

1) 도계검사원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이 세분화되어 표시되어야 하며(별첨1참조) 관계당국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2) 공급능력에 맞춘 특급 도계장 인준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특급 도계장 35개소, 1급도계장 34개소, 87.5 현재) 도축장과 같이 특급도계장, 1급도계장, 2급도계장으로 구분하고 1급도계장도 타시도 반출을 허가하는 한편 특급도계장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현대적 도계시설을 한 도계장이 경쟁력을 잃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계속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3) 각급 도계장을 구별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도계장 시설 심의위원회(예: 위원구성, 관계기관, 수의사회, 양계협회)에 의한 심사에 의거 도계장의 등급을 결정한다.

4) 당해 도계장의 모든 생산품의 라벨에 도계장과 등급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2. 검사업무 및 관리

1) 시행규칙의 검사기준에 도계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2) 검사원이 검사하여야 할 질병 및 이상 상태를 명시하고 도계금지, 전부 폐기하거나 부분 폐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별첨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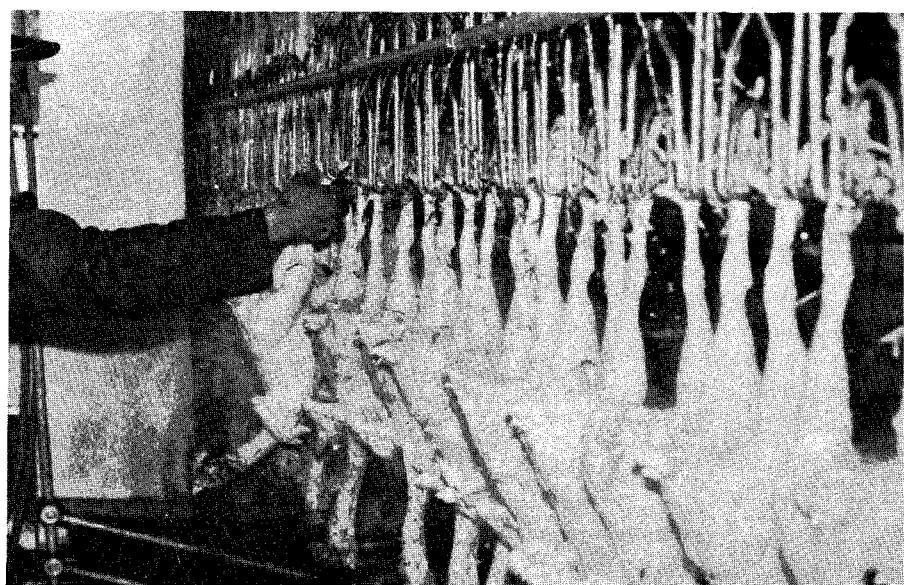
3) 검사하여야 할 종류와 검사기록부 서식을 명시한다. (별첨3 참조)

4) 도계장의 자본능력, 경영주 구성, 유통 관계 등을 볼 때 위탁도계에서 탈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도계를 할지라도 도계품 포장은 도계장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며 포장의 합격 표시사항에 작업장의 명칭은 도계장의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도계장의 등급을 추가 표시하도록 한다.

5) 부분육의 분할 포장시(현재는 부분육의 작업은 도계장이 아닌곳에서도 할 수 있다)에도 포장에 도계장의 명칭과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금후에는 통닭과 부분육은 동일하게 생각하여 일원화 하는 한편 부분육의 생산과 포장도 도계장이나 도계장 관련 건물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보존(유통)기간이 짧은 냉장품은 생산일자를 아예 늦추어 찍거나 라벨을 다시 붙치는 일이 있으므로 유통 만기일자를 표시하도록 한다. (보존

관련 사업의
발전이란 육계생산
농장에서부터
도계장시설,
도계생산기술,
유통과정상의
운반시설, 보관시설,
판매시설, 소비자의
인식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관련 사업이 같이 발전하여 위생도계품의 수용에 문제점이 없을 때 위생 도계생산을 위한 검사업무를 기업에서 필요로 할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기간이 긴 냉동품은 생산일자 표시)

7) 범용포장(별크포장) 유통을 가능하도록 하며 최종 유통처에서 범용포장의 닭고기를 개체로 유통하고자 할때는 개체 포장으로 바꾸어 포장을 하되 도계장의 명칭과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

8) 야간업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냉장 유통 라인, 육계사육 농장 수송방법이 개선 발전되면 야간근무는 자연히 줄어들겠으나 문제는 자체 검사원이 야간에라도 지켜서 자체검사를 해야할 업무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다.

9) 식난에 대해서는 품목별 구분과 등급 기준이 있는데 도계품에 대해서 언급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계품에 대한 품목별 구분과 등급기준을 정하여 등급표지를 하고 등급에 따른 가격차 이를 두도록 한다(별첨4 참조).

10) 필요에 따라 육류종의 잔류물질검사 및 세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방법과 검출시의 처치방법을 명시한다.

11) 도계장 종사원의 위생관리 사항을 명시한다(별첨5 참조).

12) 도계장의 닭 운송상자(닭어리)는 전염병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도계장에 들어온 닭 운송상자는 매번 나갈때마다 도계장에서 차제 운송상자별로 세척 소독한 후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결 론

75년도부터 위생 도계유통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생닭 판매형태가 없어지고 포장유통이 정착되는 등 나름대로 발전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계협회, 관련 산업장에서의 위생 도계

품에 대한 홍보활동은 소비자의 닭고기에 대한 인식향상과 더불어 소비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관계기관과 기업, 협회가 협조하여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금부터의 발전은 내용이 있고 실속이 있는 발전이어야 할 것이다.

위생 도계생산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검사업무를 공직화하고 검사업무만을 강화한다고 달성될 수는 없다. 전체적인 관련 산업이 같이 발전하여 위생도계품의 수용에 문제점이 없을 때 위생 도계생산을 위한 검사업무를 기업에서 필요로 할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관련 산업의 발전이란 육계생산 농장에서부터 도계장시설, 도계생산기술, 유통과정상의 운반시설, 보관시설, 판매시설, 소비자의 인식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도 문제지만 현실보다 너무 앞선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수년이래 여러개의 현대식의 도계장이 사용도 제대로 못해보고 문을 닫은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지금은 검사 업무 부재가 선결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 특히, 도계장시설 재정비 개선, 냉장, 냉동 유통의 확립, 시행규칙 중도계에 관한 시설기준,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결해야할 관계인들의 업무라고 본다.

88년도의 올림픽 경기를 치르고 나면 소비자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선진화하여 앞서갈 것이며 소비자의 소리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가 믿고, 즐겨찾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위생 도계품을 생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지름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세**

* 별첨내용이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